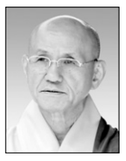
일주문



자랑스러운 전북인 상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은 1월 7일 재경전북도민회 등이 주최한 '자랑스러운 전북인 상'을 수상했다.

포교원 어린이 신도증 발급

조계종 포교원 혜총 스님은 2월 1일까지 어린이청소년 신도증 발급 접수를 받는다. (02)2011-1903

태허스님 제12주기 추모재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1월 13일 대웅보전에서 태허 스님 제12주기 추모재와 연곡 금곡 태허 스님 부도 제막식을 봉행한다.

대중결사 뇌과학-불교주제 아카데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대표 진오 스님은 1월 11일 대전 만불선원에서 뇌과학전문가 박문호 박사를 초청해 '뇌와 의식 그리고 불교' 강좌를 개최했다.

무등 스님 문단 등단

광주 천룡사 주지 무등 스님은 월간 <한국시>(12월호)에 '도량석' 등 3편의 시가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태고종 강원교구 신년하례법회

태고종 강원교구종무원장 백운 스님(춘천 석왕사 주지)은 1월 6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박정이 장군 제8대 군불총 회장 취임

합참 전력발전본부장 박정이 육군중장은 1월 10일 제8대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불교아카데미 신임 이사장 취임

신성기 불교아카데미 신임이사장은 1월 11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제3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인사 박기련 좋은벗 대표 조계종 종책특보에

박기련 좋은벗 대표는 최근 조계종 종책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종책특보의 재가불자 임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기련 신임 종책특보는 한국외대 이란어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불교신문 기자와 거제 마하병원 원무국장을 거쳐 현재 거제도에서 (사)좋은벗 대표로 활동 중에 있다.

선후배 유대관계로 실업도 해결

박경호 대불련 신임회장… "지회점검해 지원체계 마련"

"법우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며 부처님 · 법우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48차 신임회장에 박경호 전 대불회 회장(27, 대불회 02학번)이 선출됐다.

박경호 회장은 KBUF 홈페이지, 멘토사업, 온 · 오프라인 공간 활용, 문화포교의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박경호 회장은 "캠퍼스 포교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 대학의 불교학생회 지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법우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존 지회장, 지부장 중심의 단계적 연락망을 벗어나 평면적이고 다면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고 지회와 지회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공간인 법우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불련의 장학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구랍 27일 개최된 '제47년차 정기총회'에서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장이 올해 1억을 목표로 매년 20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줄 것을 약속한

박경호 대불련신임회장.

가운데 박경호 회장은 "졸업생과 재학생 법우로 구성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장학재단을 만들 것"이라며 " 외부 장학 사업이 아닌 대불련 내적인 장학 사업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불련은 청년실업 해결에도 나선다. 박 회장은 "대불련 졸업생 중 전문인으로 구성된 지부, 지회의 역할을 세분화해 멘토 그룹을 형성, 재학생들의 취업고민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 실업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남대학교 음악학부 국악과에서 대금을 전공하고 있는 만큼 박 회장은 문화로써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부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박 회장은 "율동을 전문으로 하는 연희단과 연극, 밴드 등의 분야로 세분화와 전문성을 강화해 군 포교, 사찰 공연 등의 외부 공연에도 참여할 계획"이라며 "법우들에게는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대불련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밖에도 KBUF 홈페이지에 불교 전문 컨텐츠를 구축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목탁 실수나 법회 후기 등을 올리고, 전 지회 법우들과 공유하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졸업 후에도 불교계에서 (퓨전)국악단 활동을 하고 싶다는 박 회장은 2002년 대구 경북예고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음악학부 국악과에 입학했다.

2007년 대불련 대경지부 대불회 회장, 2009년 대불련 문화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야구공 실밥도 108개, 우리생각도 108번뇌

불심으로 경기하는 월정사 '만월야구단'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과 불자들이 '만월 야구단'을 만들었다. 야구단의 이름인 '만월'은 월정사 대법륜전 뒤편에 있는 만월산을 본 따 정념 스님이 직접 지은 것이다.

정념 스님이 구단주를, 비구니 지명 스님이 단장을 맡아 이끄는 만월야구단에는 월정사 복지재단 소속 강릉장애인복지관 직원들과 강릉 원주대 교수, 한의사, 프로골퍼, 기업인 등 다양한 재가자 23명이 등록했다. 선수들은 월정사를 중심으로 강릉 · 평창 등에서 생활하는 불자들로 '불심을 바탕으로 야구 하는 팀'을 나타내기 위해 구단 유니폼에도 월정사 상징 '월정사지 9층탑'을 새겼다.

월정사 만월야구단은 총23명으로 구성된 사회인야구단이다. 만월야구단은 앞으로 야구뿐아니라 야구를 통한 불법포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장 지명 스님은 "야구공 108개의 실밥이 중생의 108번뇌와 연관되듯 두뇌와 집중이 요구되는 스포츠 야구와 불교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야구단 활동을 통해 불자 간에 화합 단결하는 것은 물론 포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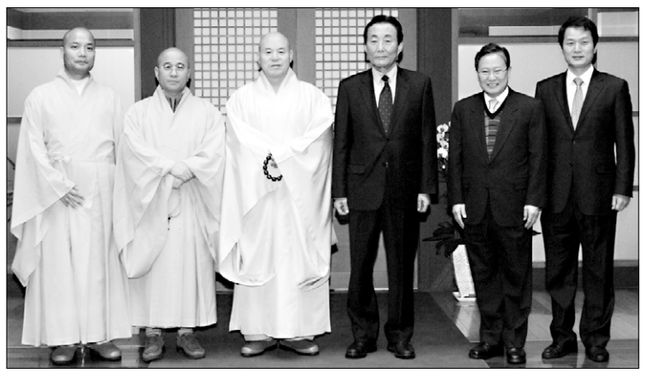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2기를 인연으로 만월야구단 감독을 맡은 박기일 전 경남고교 야구감독(법명 자각)은 "종교계 최초의 사회인 야구단으로 만월 야구단이 생활불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월 중 강릉 KBS 등에서 연습경기 등을 녹화하고 3월 경 강릉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 할 예정에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한편, 만월야구단은 2009년 11월 28일 창단식을 거행했으며 올 3월 강릉에서 KBS 예능프로그램인 '천하무적야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주 기자

"소통으로 사회 통합 이룰터"

고건 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찾아 비전 공유



자승 스님(왼쪽에서 세번째)과 고건 위원장(왼쪽 네번째)은 이날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5일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구랍 23일 발족해 2010년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불교계에서는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건 위원장은 "사회통합위원회 출범에 총무원장 스님이 격려해주셔 감사드린다. 새해 좋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왔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고 위원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취임하시며 말씀한 '소통과 화합'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이러한 가르침이 사회통합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어려운 시기, 위원장이라는 큰일을 맡으셨다. 지도력 등을 미루어 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이 많지만 종교간 갈등은 없다. 이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화답하며 "위원회 활동에 종교계 지도자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과 고 위원장은 자승 스님의 은사이신 정대 스님의 회고로 대화를 이어갔다.

고 위원장은 "자승 스님의 은사이신 정대 스님은 저에게 죽마고우와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는 스승과도 같았다"며 "서울시장 부임 당시 사적 정비 등에 더 도움을 주려 했지만 임기가 끝나 못내 아쉽다"고 인연을 떠올렸다.

자승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 고 위원장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신년인사 차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으며, 총무원에서는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등이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새해맞이 청소년 축제한마당'

자비실천운동본부, 대덕소년원에서 개최

자비실천운동본부(대표 해광)는 1월 4~6일 대전 대덕소년원에서 '2010년 불교 겨울 수련회 및 청소년 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소년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교 겨울 수련회'는 4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첫째 날에는 해광 스님의 불교기초교육, 광명 스님과 이명자, 박정화 지도위원의 인성교육, 둘째 날에는 송미자 선생의 웃음치료, 자비원 미혼모센터 원장 혜전 스님 · 대전여상 차천식 선생 등의 인성교육과 체력단련 교육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오전에 법요식이 있었고 점심에 자비실천어머니회 회원들의 정성으로 자장면 파티가 열려 일부 교육생들이 세 그릇씩 먹을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

해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사는 수가 많지만 부모는 한시도 자식 생각을 안 하는 때가 없다"며 "부모한테 효도할 다섯 가지 도리를 명심하고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므로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